“우리 스스로 ‘복밭’이 됩시다”

〈福田〉

특별인터뷰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박세동 회장 · 오시환 대표

2008년부터 캄보디아 국경村 ‘뽀디봉’ 주민들 자립 일궈내
학교 · 우물 등 기반시설 구축

16년 동안 한 곳만 집중 지원 ‘强小’ 국제구호NGO 선 사례
제40회 불이상 실천분야 수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에서 만난 오시환(사진 왼쪽) 대표와 박세동(사진 오른쪽) 회장. 두 사람은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을 반석 위에 올렸다.

캄보디아는 공산당 무장 군사조직 크메르 루주가 1975~1979년 약 4년간 통치하며 170만 명의 국민을 학살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크메르 루주의 통치기간 동안 가족은 해체되고 이어진 정책 실패로 국가 산업 전반이 붕괴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가운영이 정상화되자 캄보디아 승왕 뗍봉 스님은 전국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화전민과 항복한 군인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려 했다.

정부와의 협상 끝에 뗍봉 스님은 태국과의 국경지대에 토지를 100년간 임차조건으로 불하받았고 이곳에 화전민과 항복 군인들을 정착시켰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 이름을 뗍봉 승왕 이름 사이에 ‘보디(깨달음)’를 넣어 ‘뗍-보디-봉’이라고 지었고, 현재는 이를 줄여 ‘뽀디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시작된 뽀디봉 마을에는 처음에 아무 것도 없었다. 물도 전기도 학교도 병원도. 승왕의 자비는 하해와 같았지만, 이를 담아 움직일 수레가 없었다. 2008년 수레가 찾아온다. 저 멀리 동쪽 나라 한국에서. 이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하 수레꾼)’이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의 소사(小史)다.

수레꾼은 2008년 뽀띠봉 초등학교 건립을 시작으로 16년 동안 오직 뽀디봉 마을 한 곳에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 같은 공로가 인정돼 수레꾼은 7월 20일 제40회 불이상 실천 분야를 수상했다. 사무국장으로 시작해 현재 3대 대표로 수레꾼을 이끌고 있는 오시환 대표는 시상식에서 “지난 16년간의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는 이제 판잣집이 없고, 주민들이 자립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에는 전기가 들어와 공예학교를 지었고, 앞으로 생산과 유통을 통해 마을의 산업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피라이터→요리사→수레꾼

오 대표는 원래 잘나가는 카피라이터였다. IMF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요리사로 전업해 서울 종로에 한식음식점을 개업했다. 이 역시 입소문을 타고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오 대표는 음식점도 정리하고 봉화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수레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수레꾼의 국제구호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했다.

“수레꾼 1대 대표인 남지심 작가에게 활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2008년 뽀디봉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웠지만 이후 여러 부침이 있었더군요. 당시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던 때라 고사를 했는데, 캄보디아 여행 당시 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합장하고 구걸하던 모습의 아이들이요. 그래서 수레를 함께 끌어보자 마음먹었죠.”

수레꾼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작한 것이 학교를 비롯해 마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이었다.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4시간을 걸어가고, 이렇게 구한 물도 침전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레꾼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뽀디봉 마을 곳곳에 37개의 우물을 파서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맹 탈출을 위해 초등학교를 지었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쓰고 읽을 수 있게 됐으니 이제는 상급학교 진학이 필요했다. 캄보디아에서도 초등학교 졸업장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레꾼은 2012년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를 세웠고, 직업기술교육을 위해 2024년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를 건립했다. 매년 1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이들이 뽀디봉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장학사업도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공예학교를 세운 것은 자립을 위해서입니다. 배움을 통해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죠. 지난해 개교한 수레꾼 공예학교의 경우 올해 목공예반 5명, 봉제반 10명으로 총 15명이 관련 전문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들 솜씨가 일취월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인과 동행길이 수레꾼 회장으로

오 대표가 사무국장을 맡아 열심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최고의 조력자는 2대 대표를 맡았던 박세동 현 수레꾼 회장이다. 한국 주물업의 대가인 박 회장은 부인 서필교 보살을 따라 수레꾼 자비행 현장을 찾았다가 인연이 됐다. 박 회장은 2011년 대표로 취임한 뒤 지난해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수레꾼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부인이 사실상 스님과 같은 생활을 해요. 집에서 멸치도 먹지 않아요. 그런 부인이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니까 걱정돼 보디가드를 자처하고 현장에 갔죠. 거기서 오 대표를 만났어요. 봉사자 대부분이 여자 회원이어서 적적했는데 곡차를 함께 하면서 친해졌죠.”

직업기술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것도 기술인으로서 박 회장이 가진 신념이 작용했다.

“처음에는 공예학교는 아니었고, 한국의 공업·상업고등학교 같은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예학교를 시작했는데, 아주 잘 결정한 것 같아요.”

박 회장과 오 대표는 공예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도록 내년 전시회를 기획 중이다. 불이상 시상식 후에도 인사동 화랑들을 돌며 전시장을 알아봤다. 이렇게 캄보디아 오지 학생들의 자립 기반을 수레꾼은 만들어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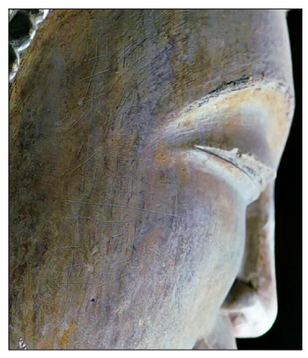
“한국의 국제구호NGO들은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려 합니다. 수레꾼은 뽀디봉 한 곳의 자립 기반이 완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작은 NGO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오시환 대표)

박 회장과 오 대표 모두 인생의 후반부에서 자비를 담아낸 수레를 밀고 끌며, 캄보디아 오지에 부처님 자비를 전하고 있다.

해외불교는 지금

1500년 전 中 불상에 낙서 ‘복원불가’

SNS에 공개돼 보호 논란
불상 2차 훼손 방지에 중점



사문탑에 봉안된 불상의 상호에서 발견된 낙서. 사진 출처=차이나 레코드

최근 중국 산둥성 제남시의 7세기 불탑 내에 봉안된 불상의 상호에서 낙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20일 중국의 소식을 전하는 ‘레코드 차이나’는 의도적으로 낙서가 된 불상의 소식을 상세보도했다.

산둥성 제남시에 소재한 사문탑(四門塔)은 중국에서 최초로 건립된 누각식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동서남북의 4면 벽에 입구가 있고 각각 내부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어 사문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조성시기에 다양한 설이 있었으나 학술 조사를 통해서 수나라 때인 611년에 조성됐다는 비문이 발견됐다. 그러나 봉안된 불상은 그보다 더 오래된 544년에 조성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1961년 불상과 탑 모두 중국의 국보에 해당되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사문탑을 방문한 사람들이 불상의 상호에 칼로 새긴듯 한 낙서가 있다고 SNS 등에 게재하면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SNS에 공개된 사진 속 불상 상호에는 ‘산둥성 측회국(측량국) 15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현지 관리처는 “해당 낙서는 간자체로 쓰여졌고, 측회국이라는 조직 역시 과거에 존재했던 부서인 점에서 오래전에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불상의 복원을 위한 작업이 오히려 2차적으로 불상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중론에 따라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부지를 둘러싸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학자, 프랑스 최고훈장 수훈

닥포 린포체, ‘레지옹 도뇌르’ 받아
“문화 간 대화로 프랑스 풍요롭게”



티베트인 최초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는 닥포 린포체와 레지옹 도뇌르 훈장 기사장. 사진 출처=파율

프랑스에 거주하는 저명한 티베트 불교학자인 닥포 린포체가 프랑스의 최고 국가 공로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훈한다. 인도의 티베트 전문매체 ‘파율’은 지난 7월 16일 프랑스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수훈 소식을 보도했다. 이로써 닥포 린포체는 티베트인으로서는 최초로 ‘레지옹 도뇌르’ 훈장 수훈자가 됐다.

7월 13일 프랑스 정부 공보에 발표된 공식 칙령에 따르면 닥포 린포체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의 제5위인 기사장(Chevalier)을 수여받는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1802년 나폴레옹이 제정한 이래 프랑스의 각 분야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된 프랑스인 혹은 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총 5등급으로 나뉘는 이 훈장의 수훈자는 윈스턴 처칠, 넬슨 만델라 등이 있으며 한국인 가운데는 조중훈 한진그룹 초대회장,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닥포 린포체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이유로 “티베트 불교 철학을 보존 및 증진하며 문화 간 대화를 진작하고 학문적, 정신적 노력을 통해 프랑스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 수십 년간 헌신해 온 그의 공로를 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